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Investment Strategy
2026.7.1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전약 후강 미국증시..다우 '최고가'로 상반기 마무리

- 미국증시 장 중 오름폭 지속 확대: 다우 +0.26%, 나스닥 +1.52%
- 달러/엔 환율 162엔 돌파..엔화 가치 40년래 최저
- 미국 5월 구인 건수 기대 이상..소비자 신뢰지수도 회복세

Summary

미국증시 전약 후강..다우지수 또 사상 최고가

미국증시는 6월 30일(현지시각) 일제히 상승하며 6월, 2분기, 그리고 상반기 거래를 마침.

목요일 고용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발표된 구인이직 보고서가 시장 예상보다 견조했고 소비자심리 지수도 회복세를 보였으며 연준 내 매파 인사의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까지 더해져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없지 않았으나 기술주,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월말 윈도드레싱 추정 물량이 유입되며 해당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림. 전반적으로 전약 후강의 흐름 안에 거래를 마침. 정보기술, 산업재 섹터의 상승이 1~2%대로 컸고 부동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은 1~2%대 하락.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6% 상승한 52,319.20에 마감해 이틀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1.52% 상승한 26,213.72에 거래를 마침. S&P500 지수는 0.79% 상승한 7,499.36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1.69% 상승했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46% 상승.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6.80% 하락한 16.45에 마감.

(다우지수 +0.26%/ 나스닥 +1.52%/ S&P500 +0.79%/ 러셀2000 +0.51%)

6월 한 달 다우지수는 2.52% 상승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고 S&P500은 1.06% 하락해 3개월만에 약세 전환했음. 나스닥도 2.81% 하락해 3개월만의 하락을 기록함. 상반기로 기간을 넓혀보면 다우와 S&P500은 8%대, 나스닥은 11%대, 그리고 러셀2000은 21%대 상승률을 기록해 수년래 최고의 반기를 기록했음.

결국 뚫린 달러/엔 162엔선

상반기를 마무리 지으며 금융 시장 내 가장 특징적인 수치를 꼽으라면 '달러/엔 162엔'을 빼놓을 수 없을 것. 전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 중 162.36엔까지 치솟았고 지난밤 뉴욕 환시에서는 162엔대 후반까지 올라 163엔대 돌파를 목전에 두는 모습이었음. 1986년 12월 이후 40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는 지난 6월 16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도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금융완화 지향에 대한 관측으로 심화되기 시작

한 엔화 매도 움직임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함께 달러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며 한층 강화됨. 현재 2.5~2.75%p로 벌어져 있는 미국과의 금리 차 또한 엔화 약세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인상 속도는 불투명한 가운데 미 연준에서 매파적 신호가 나오며 금리 인상 전망을 자극하는 것도 금리 차 추가 확대로 인한 엔화 추가 약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음. 162엔대 언저리에 엔 매수, 달러 매도 주문이 집중돼 있었던 만큼 162엔이 뚫린 지금은 손절매 물량이 나오며 달러/엔 환율이 165엔까지 상승(엔화 추가 약세)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에 힘이 실림.

한편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고 경기 위축은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이 될 수 있는만큼 악순환의 고리가 공고해지기 이전 당국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엔캐리 자금의 이동에 따른 글로벌 자금 시장 내 큰 변동성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함.

미국 5월 구인건수 '기대 이상'..소비자 신뢰지수도 개선세

이번주 목요일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은 5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가 공개됨. 구인 건수는 759만 4천건으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와 전달 수치를 웃돌았고 구인률은 4.6%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함. 퇴직은 510만 1천건으로 6만 3천건 늘었으며 퇴직률은 3.2%로 역시 전달과 같은 수치. 채용은 517만건으로 4만 5천건 감소했지만 채용률은 3.3%로 역시 전달과 같음. 전반적인 수치는 구인이 감소하지도, 해고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는 다소 경직된, 그러나 견조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여가 및 숙박업에서의 구인이 가장 크게 늘어난 만큼 월드컵을 앞둔 일시적인 구인 증가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함.

콘퍼런스보드는 6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를 집계해 공개. 6월 수치는 91.2를 기록해 시장 예상94.6은 하회했지만 전달 대비 0.6포인트 상승. 세부적으로는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상승했지만 현재 상황 지수가 하락했으며 현재 상황 지수 내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난 2021년 1월 이후 5년 5개월만의 최고를 기록. 최근 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소비자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점은 다소 엇갈리는 지점.

한편 연준 내 매파적 인사로 꼽히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고 성장세가 좋아 보인다며 근원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온 만큼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시장 내 금리 인상 베팅을 강화함.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미 국채 중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의미있게 보고 있는 4.90%선을 다시 넘어섬. 하반기 금리 추가 상승 여부는 주식 시장 내 순환매와 상승 섹터 확산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만큼 눈여겨 볼 필요.

특징종목

상반기 마지막 날도 반도체

이 달 변동성이 상당하긴 했지만 결국 가장 강한건 마지막까지 반도체주였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2%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2.63%), AMD(+7.68%), 인텔(+6.7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55%), 마블 테크놀로지(+7.68%), 온 세미컨덕터(+6.74%), 램 리서치(+5.46%), 샌디스크(+10.89%), KLA(+8.38%),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08%). 전일 대만 당국의 반도체 밀수 조사 과정에서 현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급락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4.19%)도 반등. 주요 ETF도 이를 반영해 일제히 상승했는데 VANECK SEMICONDUCTOR ETF(SMH)(+3.78%),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4.30%), INVESCO PHLX SEMICONDUCTOR ETF(SOXQ)(+3.97%), ROUNDHILL MEMORY ETF(DRAM)(+2.65%). 테마 ETF가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는 신규 ETF인 TEMA MEMORY ETF(DISK)(+3.31%)를 출시, 상장함.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과 씨게이트, 이노디스크 등 메모리/스토리지 주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해당 ETF도 거래 첫 날 3%대 상승으로 장 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침.

이날 반도체 주요 종목 관련해서는 몇 가지 개별 이슈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55%)는 미국 내에서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빅쇼트의 실제 주인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2.13%)와 함께 엔비디아(+2.6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08%) 등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소식도 있었음. 다만 관련주 상승 흐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빅테크 강세

반도체 이외에도 빅테크 전반이 강세였는데 다만 아마존(-0.75%)은 이날 클라우드 자회사인 AWS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힌 가운데 약세 마감함. 엔지니어들을 고객사에 직접 파견해 AI 소프트웨어 도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번 사업에 우선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상승했는데 전일 다우지수에 신규 편입된 구글 알파벳A(+1.05%)은 AI 최신모델 두 종, '나노 바나나2 라이트'와 '제미나이 옴니 플래시 AI'를 공개했음. 나노 바나나2 라이트는 구글의 제미나이 기반 이미지 모델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제품이며 제미나이 옴니 플래시는 고품직 영상 생성과 대화형 영상 편집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회사는 설명함.

마이크로소프트(+1.21%)와 애플(+2.71%), 메타 플랫폼스(+0.12%), 테슬라(+2.13%) 등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사용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인명 사고가 발생했찌만 2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이 유럽과 중국 판매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상승.

헬스케어: 규제 악재 부상

일라이 릴리(-2.48%), 존슨 앤드 존슨(-1.76%), 애브비(-1.05%)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던 헬스케어 업종이 이날은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머크(-0.68%), 애브비(-1.05%), 일라이 릴리(-2.48%), 화이자(-1.19%),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퀍(-1.60%)까지 총 다섯개 제약사가 중국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국가 안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 중국으로의 수출 관련, 혹은 중국에서의 임상 관련 규제 등의 악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임.

일라이 릴리는 자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스의 중국 본토 상업화 권리를 중국 제약사 이노벤트 바이올로직스에 이전했다고 밝힘.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에서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이노벤트는 이 약물의 중국 본토 내 독점 상업화 권리를 부여받게 됨. 다만 릴리가 약물의 제조와 공급, 개발은 계속 맡게 되며 구체적 금액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음. 다만 이 소식은 이날 주가에 호재로 반영되지 못함.

비트코인: 200주선 이탈

비트코인이 6만달러에 이어 59,000달러도 이탈한 가운데 200주선을 하회. 2023년 이후 처음이며 연초 대비 34.1%, 지난 한 달에만 20.2% 하락.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45% 이상 하락한 상태. ETF에서의 자금 이탈이 비트코인 약세의 주요한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서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6.20%)가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을 확보, 이를 통한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을 전일 밝히기도 했음.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200주 선은 지난 흐름을 돌아볼 때 강력한 지지선이 되곤 했지만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월등히 많은 상황. 코인베이스 글로벌(-3.60%), 마라 홀딩스(-1.00%), 라이엇 플랫폼스(-1.33, 로빈훗 마케츠(-1.52%) 등의 개별 종목이 하락했고 ISHARES BITCOIN TRUST(IBIT)(-2.60%), 21SHARES BITCOIN(ARKB)(-2.70%), GRAYSCALE BITCOIN TRUST(GBTC)(-2.67%) 등의 비트코인 기반 ETF들도 동반 약세.

한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주목받는 서클 인터넷(-17.55%) 주가는 비자(+0.42%)와 마스터카드(+0.78%), 코인베이스(-3.60%)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오픈 스탠더드라고 명명된, 오픈 USD라는 경쟁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자 급락. 다만 윌리엄 블레어는 20조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며 경쟁자의 등장은 오히려 상업화의 가능성을 입증해주는 사건이라고 평함. 윌리엄 블레어는 서클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재차 확인함.

이외 특징주

로켓랩(+3.71%), 전일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를 8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회사 CEO는 이번 인수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

이날 NASA는 달 기지 프로그램의 무인 달 착륙선 계약을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1.20%)와 인튜이티브 머신스(+2.00%), 애스트로보틱 등에 발주했다고 밝힘.

블룸에너지(+10.07%)와 브룩필드(+1.07%)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협력 규모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5배 확대해 AI 전력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한다고 밝힘. 이에 블룸에너지는 정규장 10%대 강세에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도 20%내외 급등.

조비 에비에이션(+3.36%)이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에어택시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힘.

카타르에서의 미국-이란 고위급 회담이 없을 것이라는 이란 측의 발표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은 여전해 이날 방산 관련주는 대체로 상승. 록히드 마틴(+1.47%), RTX(+1.28%), 노스롭 그루만(+2.68%). 드론 방산 업체 에어로바이런런트(+18.76%)가 시장 예상르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급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대폭 증액, 드론 전력 강화 정책이 맞물려 방산주로서 부각되는 모습.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었으며 총 마진도 관세 환급 효과를 반영해 49.2%까지 개선. 다만 중국 매출 감소와 직접 판매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시간외 거래에서 5% 내외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달러 강보합..달러/엔 162엔 중반

미국 달러 가치는 소폭 상승해 강보합권에 머물렀음. ECB 주요 인사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발언에 유로가 강세를 보였고 엔화는 달러당 162엔을 넘어 163엔을 향해 움직임(엔화 추가 약세). 월말 엔 강세 베팅을 청산하는 물량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 달러/엔 환율은 162.57엔을 기록.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06% 상승한 101.168을 기록했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0.007% 상승. 이날 발표된 독일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하회. 다만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와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냄.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장중 1,550원을 다시 돌파하기도 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다 1,549.4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49.50원으로 0.10원 상승함.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05원)을 감안하면 전일 종가 대비 1.75원 하락한 1,546.60원에 마감.

국채금리 상승

미국 국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 노동부의 5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자 금리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난 5월 구인 건수는 지난 2024년 5월 이후 2년만의 최고치로 집계돼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남. 목요일 고용 보고서 공개를 앞둔 가운데 확인한 강력한 수치는 연준의 긴축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힘을 보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짐.

2년물 국채 금리는 6.8bp 상승한 4.1723%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9.1bp 상승한 4.4652%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8.8bp 상승한 4.9513%를 기록해 지난 24일 이후 처음으로 4.90%를 재차 상회함.

한편 아폴로는 이날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하이퍼스케일러 등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미국 국채 수요를 잠식해 국채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며 신용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해 경고함.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낮춘 17%대로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은 39% 수준으로, 두 번 인상 가능성은 31%수준으로 반영했고, 세 번 인상 가능성도 11%수준으로 반영함.

공급 과잉 전망에 유가 하락…WTI 다시 70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며 전일의 반등세를 뒤로 하고 하락 마감. 모건스탠리는 원유 시장이 내년 공급 과잉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사이클을 완전히 돌아 다시 공급 과잉으로 돌아왔다. 고 진단함. 이와 함께 올해 3분기와 4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 이전 전망 90달러, 80달러에서 각각 75달러로 하향 조정.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전망치도 80달러에서 각각 75달러, 70달러로 낮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77% 하락한 배럴당 69.50달러에 마감했고 이날 만기를 맞는 브렌트유 8월물은 0.31% 하락한 배럴당 72.92달러에 마감했음.

금가격은 연준의 긴축 전망에 다시 무게가 실리며 보합권에 머무름.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트로이온스당 4,040.6달러대에 마감. 장 중 3,955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4,000달러선에서는 일단 지지력을 보임. 9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2% 이상 상승해 온스당 59달러대를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